

시키보 - 면 섬유의 심부 소수화 기술, 인도네시아에 이식

시키보는 염색 가공 자회사인 “시키보 고난(江南)”이 개발한 면 섬유의 심부(芯部)만을 소수성(疎水性)으로 개질하는 기술을, 인도네시아의 방직·편성·염색·가공 자회사인 “멜텍스(Mertex)”에 전수하였다. 멜텍스는 이 기술로 속건성을 좋게 가공한 천을 “룸 드라이(Room dry)”나 “조건(早乾)”의 브랜드로 상품화하였다. 시키보는 이 기술을 전수하여 이들 천을 멜텍스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판매를 확대시킬 계획이다.

“룸 드라이”는 면 섬유의 심부만을 소수성으로 만들어 건조가 빠르게 되도록 한 가공에 항균·방취, 소취 가공을 곁들여 생산한 천으로서, 2003년 8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, 2004년 춘하절부터는 이 천으로 만든 드레스 셔츠 등이 소매점에 진열되었다. 이 천을 멜텍스에서 생산하게 됨으로써 2005년 춘하 판매전에서도 호조를 보였다.

“조건”은 “도레”와 공동으로 기획한 면·폴리에스터 혼방 천으로서 “도레”의 “텍스타일개발센터”에 있는 인공 기상실 “테크노라마”를 활용하여, 35℃의 온도에서 시간이 경과하는 데 따라 수분율이 줄었을 때 세탁물에서 냄새가 나는가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, “세탁물의 수분율이 30~50% 상태에서 1시간 이상 경과하면 세탁물에서 냄새가 난다”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. 이 “냄새가 나는 수분율과 시간의 영역”에 걸리지 않도록 1시간 이내에 건조하는 천을 “조건” 브랜드로 2003년 11월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

2004년 춘하절에는 이 천으로 만든 폴로 셔츠를 비롯한 각종 제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 멜텍스에서 생산한 이 천은 2005년 춘하절 판

매전에서 코스트 다운으로 경쟁력을 키워 2억엔 정도의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♣